



미국, 코로나19로 인한 생명보험 산업 영향

홍보배 연구원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미국 생명보험 산업은 사망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기적으로 전례 없이 큰 영향을 받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망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서 사망보험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보유계약의 해지는 감소함. 한편,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생명보험회사일수록, 사망보험 신계약과 해지 모두 팬데믹 이전 대비 변화가 적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미국 생명보험 산업은 사망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단기적으로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인 2020년, 2021년의 연간 생명보험 사망보험 지급액은 각각 904.3억, 1001.9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83.6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¹⁾
 - 미국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증가율(15.4%)은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발생한 1918년(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그림 1) 참조
-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생명보험 산업의 순이익은 174억 달러로 2019년(397억 달러) 대비 56.2% 감소함²⁾
 - 이후 2021년, 2022년 생명보험 산업의 순이익은 각각 336억 달러, 349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397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으로 미국 내 사망보험 신계약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망보험 해지도 감소하는 등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PwC가 2020년 2분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참여자의 15%가 “팬데믹 경험으로 인해 향후 사망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함³⁾
 - 사망보험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사망보험의 신계약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세임(그림 2) 참조⁴⁾
- 또한 이처럼 사망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등 미국의 경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망보험 해지(Surrender)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사망보험 해지액은 304.5억 달러로 2019년(340.7억 달러) 대비 10.6% 감소하였음⁵⁾

1)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23. 11. 7), *ACLI 2023 LIFE INSURERS FACT BOOK*

2) NAIC(2023), “U.S. Life and A&H Insurance Industry Analysis Report”, *2022 Annual Results*

3) PwC(2020), “COVID-19, consumers and coverage: Survey shows what insurance buyers want now”

4) MIB Group Holdings(2023), “MIB Life Index 2022 Annual Report”

〈그림 1〉 미국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증가율 추이



자료: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23. 11. 7), ACLI 자료: MIB Group(2023), "MIB Life Index 2022 Annual Report" 2023 Life Insurers Factbook

○ 한편, 미국 개별 보험회사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출도⁶⁾가 사망보험의 신계약 및 해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노출도에 따라 사망보험 신규 계약 및 해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⁷⁾

-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개별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주(州)의 코로나19 사망률 등의 차이는 사망보험의 신계약과 해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함
- 실증분석 결과,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19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수록, 사망보험 신계약과 해지에 있어 모두 팬데믹 이전 대비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소비자의 사망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공급 측면에서 유병률 관련 건강상태 기준 강화 등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에 관한 인수 기준 강화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가 생명보험 구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팬데믹 발생기간 동안 사망보험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과 관련하여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함
 - 또한 신계약에 관한 수요, 공급 외에도 보유계약자의 해지(Surrender)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계약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컸음을 시사함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개인의 보험 가입(신청) 및 해지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가져온 것뿐 아니라, 공급자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가 사망보험의 공급자(보험회사) 및 소비자(보험계약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업계 모두가 미래의 팬데믹 이전, 도중, 이후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5)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23. 11. 7), ACLI 2023 LIFE INSURERS FACT BOOK

6) 코로나19 노출도 (COVID19 Exposure)=(해당 주(州)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해당 주(州)의 인구수)X(해당 보험회사의 해당 주(州)의 사망보험 수입보험료/해당 보험회사의 전체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7) Cassandra R. Cole and Stephen G. Fier(2023), "Pandemics and the Individual Life Insurance Market", *Journal of Insurance Issues*, SPRING 2023, Vol. 46, No. 1